

# ‘믿고 보는’ 대배우 송강호 주연작 ‘1억 관객’ 대기록



‘쉬리’ ‘밀정’ 등 22편서 주연  
한국영화 사상 최초 영예

배우 송강호가 자신이 주연한 영화로 1억 명의 관객을 모으는 대기록을 세웠다.

28일 영화계에 따르면 송강호는 최근 ‘밀정’이 700만 관객을 넘어섬에 따라 자신의 주연작만으로 합산 관객 수가 1억명을 돌파하는 한국영화 사상 최초의 배우가 됐다.

배우 오달수가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누적 관객 수가 1억명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주연작만으로 1억 관객을 돌파한 것은 송강호가 처음이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송강호는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스크린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쉬리’(1998년), ‘넘버3’(1997년), ‘조용한 가족’(1998년), ‘복수는 나의 것’(2002년), ‘살인의 추억’(2003년), ‘효자동 이발사’(2004년), ‘박쥐’(2009년) 등 총 22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 가운데 2003년 526만명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 1300만명을 불러모으며 당시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오른 ‘괴물’ 등 출연작마다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관객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특히 김지운 감독과 네 번째 호흡을 맞춘 ‘밀정’에서는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역을 맡아 시대에 휩쓸려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김 감독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강호에 대해 “모든 감독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이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배우”라고 극찬했고, 송강호는 “작품을 할 때마다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MBC 창사 52주년 특집프로그램 ‘풍성’

토크콘서트·나눔 장터 등 행사도 다양

광주MBC가 10월8일 창사 52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한다.

‘하얀 나비’, ‘이름 모를 소녀’ 등을 남긴 가수 김정호를 추모하는 ‘MBC가요베스트’가 10월3일 오후 7시 모교인 광주 수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김수희, 백영규, 임창제, 조승규, 최진희 등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해 김정호의 삶과 음악을 노래한다.

6일 오후 7시에는 ‘희망필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린다. 수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400억원대 자산도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한국의 청년 버핏’ 박상철씨가 참여한다. 또 네이버 포스트에서 ‘좀 놀아본 언니’라는 필명으로 3만여명에게 고민 상담을 해온 정년멘토 장재열씨도 함께한다.

같은 날 밤 11시10분에는 ‘특별대담 메릴랜드의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이 방송된다. 나주 출신으로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지사 부인이자 화가, 교수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유미 호건을 미국 현지에서 만나본다. 미국 땅에서 한인 퍼스트레이디 생활과 이민 여성의 역경과 도전, 한국사랑에 대해 들어본다.

7일 오후 6시10분에는 ‘다큐멘터리 역사도시의 부활’ 나주의 꿈’이 전파를 탄다. 혁신도시 정착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나주의 다양한 삶을 살펴본다.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특집 토론도 마련된다. 광주·목포·여수MBC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특집토론 천



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가 10월2일(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10분에 5회 연속 방송된다.

‘제1편 역전의 시대, 광주전남은 어디로?’를 시작으로 ‘제2편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제3편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제4편 창의의 시대, 문화·관광이 답이다’, ‘제5편 천년의 전라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다’에 대해 살펴본다.

매년 10월 열리는 시민자선축제 ‘제13회 빛고를 나눔장터’는 10월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어린이, 시민, 기업, 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헌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음 기부해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행사다. 버스킹 공연, 명인명사기증품 경매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김선아·김희선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 캐스팅

배우 김희선(39)과 김선아(41)가 사전 제작되는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 캐스팅됐다. 흥보사 와이트립컴퍼니가 27일 발표했다.

‘품위 있는 그녀’는 호화로운 삶을 즐기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몰락과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코미디다.

김희선은 준재벌가 며느리 우아진으로 등장, 상류사회의 민낯과 허상을 고스란히 보여줄 예정이다.

또 김선아는 상류사회로 진입하겠다는 꿈을 품은 충청도 출신 요양사 박복자를 연기한다.

김선아와 함께 11년 전 ‘내 이름은 김삼순’(MBC TV) 흥행을 이끌었던 김윤철 PD가 이 드라마를 연출한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응동아’의 백미경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연합뉴스



‘품위있는 그녀’는 2017년 상반기에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아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재) 10 절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시아 문화콘서트 전통시장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00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12	00 KBS 뉴스 12	05 추석특집 <한국의 맛 세계를 품다>(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 (재)		30 MBC 나눔 특집 다큐 농어촌 희망 오케스트라 꿈을 연주하는 아이들	
2	00 TV소소 진품명품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15 TV블로그 필지락 20 일인TV 시청자 세상 55 닥터365
3	00 감성애니 하루 05 이웃집 찰스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대 2 55 책갈피 요청 포보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워킹맘 육아대디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의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터닝메카드 W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안녕 저두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필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버티맨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5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CCTV 공동제작 임진왜란 1592 제작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항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공부가 좋다)	10 해피 투게더	10 미래일기 시간여행자의 하루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사람과 사람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위대한 엄마 <초보 체코맘의 시댁살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능산기행 4부 통영 날아오르다>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절임과 루콜라 소고기볶음)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장수의 비밀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역사채널e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3:40 스콜랜드 - 한자왕국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3:50 그림을 그려요
09:15 시계마을 타키톡!	13:55 출동! 슈퍼왕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15:05 두기잡힐때	20:50 세계테마기행 <매콤,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가다 4부 마지막 선물, 매공벨라>
15:20 꼬마키사 마이크	21:30 한국기행 <동네의 영웅 4부 황장산 금단의 길이 열린다>
15:35 요술상자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인생수업 베테랑>
15:45 코코코다코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6:15 두다다콩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 (음 8월 29일 甲寅)
子	48년생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60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만 유지된다. 72년생 예견의 정확도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8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65, 46	42년생 양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54년생 백 미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66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니. 78년생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실수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4, 55
丑	49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대범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요구된다. 61년생 호기가 주어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빛나라. 85년생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3, 03	43년생 한정된 대상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동세이다. 55년생 다 양성의 상황 하에서 활로가 보인다. 67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두어야 할 시기이다. 79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20, 88
寅	50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을 수다. 62년생 적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74년생 받아들인다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86년생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4, 93	44년생 지금 미진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56년생 효율성을 견지하라. 68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80년생 당장 할 수 있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7, 27
卯	51년생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3년생 본 능력이러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7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87년생 호흡 있는 약은 입에 쓰고 도우려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4, 49	45년생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중차대함을 간과하게 된다. 57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되겠다. 69년생 반갑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81년생 뜻밖의 횡재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4, 91
辰	40년생 실요적 방언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52년생 수용한다 면 원만해질 수 있겠다. 64년생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76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염원해 왔던 바를 얻게 된다. 88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행운의 숫자 : 86, 29	46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58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70년생 명확한 징후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마라. 82년생 개혁 정신을 발휘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45
巳	41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53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만 대고도 없으니라. 65년생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77년생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89년생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4, 81	47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운 뿐이니 실질적인 대응이 옳다. 59년생 이대로는 아니 되니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71년생 원칙을 중시해야 체계가 설 수 있느니라. 83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1, 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